

전남교육청, 학생 예술역량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강화

학생오케스트라·전통예술 거점교육지원청 운영 등 적극 추진 김대중 교육감 현장 소통 프로그램 대중교통(敎通) 현장 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전남교육청은 12일 오전 화순만연초등학교에서 가진 김대중 교육감 현장 소통 프로그램 대중교통(敎通) 현장 출근을 통해 미래 예술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있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 학교예술교사 운영 지원 △ 학교예술교육자문단 운영 △ 전통예술 거점교육지원청 운영 △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주도로 이뤄지는 '프로젝트형 학생예술동아리'를 비롯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악기뱅크 구축 및 운영, 학생 예술활동 공연·전시·체험 축제 운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교육가족과의 대화시간에는 만연초 졸업생 4명이 올해 미국 버클리음악대에

학에 전원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나누며,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 지역은 예술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내실있는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낼 수 있다."면서 "지역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영암은광학교,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지난 4월 6일(토요일)에 은광학교의 벽면이 예술의 마법으로 덮여졌다. 전남예술고등학교, 영암=조대호기자

은광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벽화그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학교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었다. 이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예술적 기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로,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학교 곳곳에 펼쳐졌는데 한쪽 면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풍경화가 있고, 다른 면엔 추상적인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압해동초,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참가

'어린이 놀이 시간 보장'·'바른 말 사용' 주제로 3분 자유발언



신안압해동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지난 4일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바른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압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운동장 인공 잔디 설치' 조례안을 처리하고, '어린이 놀이 시간 보장'과 '바른 말 사용'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압해동초등학교 100 학생은 "전라남도의회에서 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알게 되었고,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안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 배운 것들은 학교에서 큰다모임을 할 때 적용해 볼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화순교육청,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화순하늬스포츠클럽 센터 공설운동장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4학년도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육상경기는 정종초등학교 김효관 교장 선생님이 쏘아올린 신호탄 소리에 맞춰 시작되었으며, 화순 관내 초·중학교에서 대표 학생 초등 8종목 298명, 중등 8종목 141명 등 총 439명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닦은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경기종목은 80m~1,500m 트랙 경기와 계주 경기, 멀리뛰기, 공던지기, 투포환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참여한 학생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서로를 응원하며 경기를 즐겼다. 조영태 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 도 학생들의 건강과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승패를 떠나 질서를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분향초, 장성 선비 정신 있는 장성 향교 체험학습 실시

'선비 정신 있는 분향초 꼬마 선비들'

장성분향초등학교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장성 선비 정신을 있는 장성 향교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꼬마 선비들은 우리 고장 장성의 유형문화재인 향교를 방문하여 선비들의 청렴, 절의, 학문탐구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시대 향교에서 입었던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꼬마 선비가 되었다. 향교는 조선시대 공부하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

장성이 왜 문향의 고장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고장의 유명한 인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자성어와 속담 배우기, 다도체험, 활쏘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으로 조선시대 학교인 향교에서 꼬마 선비가 되는 체험을 하였다. 분향초등학교는 특색교육으로 '우리 전통 멋 잇기'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우리 옷 한복을 입고서 다도와 전통놀이를 즐기고, 방



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해금, 가야금, 모듬북 등의 전통 국악기를 배우며 우리의 멋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